

첨단 에너지 신기술 '한눈에'...광주서 '빅스포 2024'

광주시·한전, 6~8일 김대중센터서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 주제 기업·대학·연구소 등 150곳 참여 신제품 전시·홍보...학술회의 진행

최첨단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빅스포(BIXPO·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2024'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빅스포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국제학술회의, 국제발명특허대전, 신기술 공개

(BIXPO UNPACKED)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에너지, IBM 등 세계적 기업을 비롯해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50곳이 참여해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전시와 홍보를 진행한다. 또 세계적 이슈와 산·학·연 에너지 연구개발(R&D)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학술회의 40개 세션이 열린다.

특히 빅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신기술 공개' 행사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에너지기술 선도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최첨단 에너지 신기술과 제품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6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최남호 산업통

상자원부 차관, 김동철 한전 사장, 요 콧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여해 기조연설, 비전 선포와 세리머니,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시회 등 빅스포 전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한전과 협의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티켓 소지자는 빅스포 무료 입장이 가능토록 했으며, 빅스포 티켓 소지자도 광주비엔날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부스 방문자와 체험존 이용객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시장 내 광주시홍보관에서는 '에너지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도도시' 광주시의 추진전략을 알린다. 홍보관에서는 분산에너지 생산·소비·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광주의 다양한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또, 광주시·광주과학기술원 공동주관으로 에너지혁신학술회의를 열어 최근 에너지산업 분야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거래에 대한 최신 기술과 사례, 광주시 차원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빅스포 방문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등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투자여건과 분양 안내, 기업 지원, 펀드투자 등 광주시 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광주시홍보관과 체험관 이벤트를 마련한다. 광주시 열린휴를 체험존에서 체험을 완료하고, 광주시 체험존을 방문하면 경품으로 휴대폰 충전기 등을 선착순 지급하고, 부스별 무료체험 후 솜사탕과 팝콘 등을 제공한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를 방문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빅스포를 통해 광주가 이끌어가는 에너지정책을 널리 알리고, 에너지 최첨단 기술 습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민 518명, 한강 작가 작품 필사한다

시립도서관, 11월 한달간 이벤트

광주시민 518명이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4일 광주시립도서관은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 필사하기' 행사를 11월 한 달 동안 연다.

이번 행사는 대표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5·18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시민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민 518명을 선착순 모집해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필사할 수 있는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 '필사 존'을 각각 운영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작성한

필사를 한데 모아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도서를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11월부터 도서대출 권수를 1인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는 등 독서문화 향상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이와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작품 토크아보기 순회강연을 마련한다.

15일 산수도서관에서는 이강선 교수가 '채식주의자', 16일 무등도서관에서는 허희 문학평론가의 '소년이 온다', 21일 사직도서관에서는 김형중 교수의 '작별하지 않는다'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참여는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포럼 광주 임택 동구청장 등이 4일 동구 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포럼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체험형 답례품' 발굴 박차

전국 최초... 나주 등 3곳 선정 멘토 지정 상품 개발·고도화

전남도가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사업 컨설팅으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전남 고향마을 활성화사업 멘토로 지정, 각 마을 체험상품을 고도화해 매력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개발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마을 활성화사업은 고향사랑기부자의 고향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한 농수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에서 벗어나 직접 고향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체험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답례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체험형 기부금 답례품 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나주 이슬촌 마을, 광양 도선국사 마을, 장성 별내리 마을을 선정했으며 현재 답례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 이슬촌 마을은 김치 체험프로그램, 노안 성당을 활용한 신규 체험 행사 개발 및 고도화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으며, 마을 지원 홍보, 마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양 도선국사 마을은 현재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인절미 체험, 전통 손두부 체험, 매일 쌀강정 체험, 부채 한국그리기 체험 등 전체 체험 행사를 체계화·고도화해 마을 공동 브랜드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성 별내리 마을은 천문 체험 프로그램, 수제 맥주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 고향마을 답례품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더불어 마을별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개발·고도화, 마을 내의

부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마을별 답례 멘토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마을을 대상으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마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개발한 체험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loveoghyang.go.kr) 시스템이나 농협은행에 기부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정착 지원

영암 등 6곳 대상 정착지원금 지급

전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 해남, 고흥, 장흥, 곡성, 보성 등 총 6곳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추천을 받아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이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

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5년간 거주하게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현재 거주 중인 군의 외국인 정책 담당부서에 하면 되며,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은 12월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조건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한일우호증진 문화축제 참여... 공연·홍보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나라현과 오사카시에서 열린 한일우호증진 문화축제에 참여해 전남의 전통문화·관광을 알리는 등 한일 간 우호 증진에 나섰다 4일 밝혔다.

한일우호증진 문화축제는 한반도 이주민이 불교와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역사적 교류를 기념하는 행사로 전남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나라현일한친선협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나라현 지방본부, 오사카와소교류협회 등이 공동 주최

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판소리, 산조 병주, 부채춤, 남도민요, 사물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전남의 예술적 우수성을 일본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또 행사 기간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이밖에도 일본의 전통 음악, 케이팝(K-POP), 제이팝(J-POP) 공연이 어우러져 두 나라 문화의 풍성한 상호작용도 이뤄졌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 호응

예비작가·학생 창·제작 지원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하 지맵)'의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디지털 아티스트 및 작가 지망생,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및 예술 분야 예비 취·창업자 15명을 선발해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 및 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맵은 디지털아트 분야의 예비작가 및 창·제작자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로,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지맵은 이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노병하 기자